

# 화순교육청, 자녀 진로 교육 위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성료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지난 24일 관내 늘푸른 마을학교 야외 공연장에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학년도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학부모에게 자녀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직업관의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정 거리유지와 안전을 위해 넓은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됐다.

특강을 맡은 와이즈멘토(진로교육

##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60여명 참석 진로지도 정보제공·직업관 정립 위해 마련

전문연구소) 조진표 대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 기준으로 한 진로교육은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미래직업 변화 트렌

드를 소개하고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안내하는 등 자녀의 적성 및 역량을 고려, 사회변화에 따른 현명한 진로지도에 대해 설명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능주중에 재학 중인 딸을 둔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

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자녀교육에 대한 해답을 얻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원식 교육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함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는 인재육성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진로교육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순교육지원청은 11월과 12월에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진로 강연을 계획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 금호평생교육관, '맘(Mom)편한 독서회' 운영

### 예비 엄마 대상...건강한 출산·육아 유도 위해 계획

광주 금호평생교육관이 임신 준비 및 임신 중인 예비 엄마를 대상으로 오는 11월10일~12월22일 매주 월요일 오후 1~3시 '맘(Mom)편한 독서회'를 운영한다.

26일 금호평생교육관에 따르면 '맘(Mom)편한 독서회'는 그림책 태교로 예비 엄마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와 건강한 출산 및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했다.

'맘(Mom)편한 독서회'에서는 우선 예비 엄마들이 임신·출산 및 육

아 관련 도서를 자유롭게 선정하게 된다. 그 후 인상 깊은 구절 필사, 태교(태교를 위해 태아에게 말을 건네는 활동), 경험담 공유 등 임신 안정에 도움 되는 다양한 독후 활동 및 소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맘(Mom)편한 독서회' 참여를 희망하는 임신 준비 및 임신 중인 예비 엄마들은 오는 10월28일~11월6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규 회원에게는 태교 동화책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를 증정할 계획이다.

금호평생교육관 김선옥 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금호평생교육관은 예비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맘(Mom)편한 독서회'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엄마들이 편한 마음으로 태교에 전념해 미래의 새싹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호평생교육관에선 독서 생활화 운동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3개의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다. '맘(Mom)편한 독서회' 관련 문은 금호평생교육관 문헌정보과(☎360-6673)로 연락하면 된다.

조인호기자

## 순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 내달 6일까지 총 4회 걸쳐 '슬기로운 한국생활·안전한 유학생생활' 주제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슬기로운 한국생활, 안전한 유학생생활'을 주제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제교류교육원(원장 천지연) 주최로 순천경찰서 및 순천대학교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외국인에

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피해를 줄이고 의식하지 못하였던 성범죄 관련 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유학생들의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취업,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안전교육,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실제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학원에 재학중인 낭진마원(미얀마)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각종 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법과 규칙을 잘 지켜 부끄럽지 않은 순천대 학생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라고 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다.

순천대 천지연 국제교류교육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확대하여 순천대학교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순천대학교는 어학당 및 학위과정에서 수학 중인 미국, 아시아, 유럽권 등 48개국 361명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체본부김승호기자

## 보성Wee센터, '아빠와 함께하는 1일 캠프' 운영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 Wee센터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4일 1차와 2차로 나누어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4명과 학부모 14명을 대상으로 '2020년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1일 캠프'를 실시하였다.

'아자아자'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자리라는 의미의 슬로건을 가지고 2013년을 시작으로 8회째 진행되고 있는 부모-자녀 캠프로 학부모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평소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든 아버지에게 놀이 활동, 가족 역할극, 목공예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빠와 자녀 간 애착관

계를 향상시키고 서로 간 소통의 통로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는데, 캠프로 부모-자녀 친밀감 형성 역할극을 통해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딸의 마음도 조금 이해하게 되고,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서로 고마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한관 교육장은 "본 캠프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화되고 그



와 더불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성교육지원청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 광주서부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위한 긴급 협의회'

### 박주정 교육장 특강 진행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서부 관내 전체 고등학교 42개교 및 특수학교 3개교 등 총 45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대강당에서 '학생 자살예방 위한 긴급 협의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2개교, 23개교로 나눠 총 2회에 걸쳐 진행됐고, 각 학교의 교감, 상담(교)사가 참석했다.

26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 가정 내 불화,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상담 지원 미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추진했다.

협의회에서 특강을 진행한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

한 괴로움으로 마음 아파했던 지난 날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러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들이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마음보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학교 생명 존중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인호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